

“혁신도시·영산강 양대축... 문화·복지의 행복도시 만들겠다”

민선 6기 단체장에 듣는다 강인규 나주시장

“혁신도시와 영산강이라는 양대 축으로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진 행복한 나주를 만들겠습니다.”

민선 6기 나주호가 지난 1일 취임식을 갖고 4년간의 일정으로 항해를 시작했다. 2630억원의 부채라는 버거운 짐을 안고 출항해 다소 험겨워 보이지만 그래도 혁신도시라는 희망에 짐도 함께 실려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진 행복한 나주’를 만들겠다는 강인규(59) 신임 시장에게 현안 사업과 시장 운영 방향 등을 들어봤다.

-나주가 혁신도시건설로 발돋움하느냐, 눈덩이처럼 커진 부채에 침몰하느냐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시장이 되셨는데 소감을.

▲당선의 기쁨보다 엄청난 부채로 부담 위기에 놓인 나주의 미래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다. 뼈가 부스러지는 한이 있

86억원을 내고 부도나 버렸다. 현재 우리는 행은 채무보증서에 사인한 나주시를 상대로 76억원을 달라며 소송 중이다. 결국 86억원 받고 108억원을 떠안게 될 처지이다.

만약 미래산단 분양가가 높아 분양에 빨간불이 켜진다면 2000억원에 대해 채무보증서에 사인한 문제가 시를 부도 위기가 지 볼러울 수 있다. 먼저 부시장 중심으로 ‘재정위기 특별대책반’을 꾸리고 시민단체와 뜻을 같이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겠다.

-나주시의 발전 여부는 혁신도시에 달려있는데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이지만 나주시가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 여건을 잘 갖춰놓지 않으면 누가 들어와 살겠는가. 올해 말까지 한전이 이전하면 각 공공기관 내에 로컬푸드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한전사장과 논의해 한전 건물 내에서 나주에서 생산하



강인규 시장 프로필 ▲1955년 4월 10일 나주 출생 ▲제 12~13대 반남농협 조합장 ▲김대중대통령 선거 나주시 선거대책본부 기획실장 ▲제 4~5대 나주시의회 의원 ▲제 5대 나주시의회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 ▲제 5대 나주시의회 의장

다. 또 관내에는 많은 고분군들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인수위 자료를 보면 나주시의 한해 예산규모는 5000억원 정도다. 이 가운데 직원들 급여 등을 지급하고 나면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약 500억원이다. 이 예산으로는 많은 분야를 만족할 수준으로 손볼 수가 없다. 다행스러운 것은 혁신도시에서 들어올 재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나주는 영산강이라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다. 혁신도시의 중요성만큼 영산강은 우리에게 보물고도 같은 존재인데 물고기도 살기 힘들고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오염이 심각해 개선방안이 있는가.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이다. 나주는 영산강이라는 풍부한 물을 가지고 있다. 또 담양에서 시작해 목포 앞바다까지 영산강 줄

기에 6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영산강물이 시내를 거쳐 흐르거나 강물을 바라보면서 차나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나주가 유일하다.

타 지자체에서는 댐에서 흐르는 적은 양으로도 축제를 열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우리가 저 영산강 물을 깨끗하게만 할 수 있다면 타 지자체의 그것과 비교가 되겠는가. 하지만 영산강물이 우리가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안 좋다는 것이 문제다. 광주에서 방류하는 생활 폐수가 65% 정도 정화되고, 35%는 그대로 방류돼 흐른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물을 정화하려면 고도 처리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예산이 약 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만약 시설을 갖추려면 400억원 정도의 국비뿐만 아니라 광주 시비도 지원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지서천과 황룡강에서 흐르는 물

로 자정능력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보를 막기 전에는 양 지류에서 6t씩 12t이 방류되던 기본 하천 방류수를 4대강 사업으로 보를 막으면서 3t씩으로 줄어 수질이 오히려 악화된 상황이다. 수자원공사와 협력을 해서 수질을 개선시키고, 영산강 둔치에 워터시설 등을 갖춰 혁신도시 입주민 뿐만 아니라 인근 광주시민들도 영산강변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나주시내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혁신도시로 인해 원도심이 공동화되고 있다는 주장인데.

▲그렇다. 정말 걱정 중의 하나다. 혁신도시와 서로 상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빠져나가지만 하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선거 과정에서 현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후보시절에 나주를 방문했을 때 ‘강인규가 당선되면 가장 먼저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도시 재생사업 규모가 약 200억원인데 그 정도만 주어도 나주읍성을 수원읍성보다 더 잘 꾸릴 자신이 있다. 나주읍성은 독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데 지역민 채용은 고작 6명이다.

또 맞춤 일자리 교육으로 잘 알려진 영산포에 있는 직업 훈련원의 운영실태를 살펴봤더니 최근까지 운영주체가 경상도 법인이라. 문제가 되자 법인을 바꾸기는 했는데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

문제점을 개선해 지역인재 채용시스템이 최상으로 굴러가도록 할 생각이다. 또 기업대표들을 자주 만나 행정적인 도움은 최대한 해주는 대신 지역민 채용을 적극적으로 배려해줄 것을 요구하겠다.

-나주 미래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미래 산단단지 개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인가.

▲어찌 됐든지 미래산단은 조성을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나. 투명성과 원칙이 무시된 밀실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서도 원칙이 무시되고 있어 제2의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3000억 육박하는 부채 생각하면 잠도 못 자 미래산단 조성 마무리 잘해 빛 사슬 끊겠다

일 북서부 윈스터 증소도시처럼 성과를 나 무로 심어 복원했으면 한다. 성곽 자리에 나무를 심으면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시민들에게 나무속 길을 제공해 딱딱한 도시 공간에서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그 안에 한옥촌도 만들고, 예술촌 및 제2의 문예예술화관 등을 건립해 새로운 개념의 도심 재생을 펼쳐나갈 생각이다. 상상해 보라. 가을에는 온 도시가 단풍으로 물들고 봄에는 새순이 돋아나는 나무들이...

또한 영산포도 소중하게 가꿔 나갈 구상이다. 근대 건축물들이 남아 있고 육지에 등대가 있는 ‘홍어의 거리’ 등 얼마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땅들인가. 단순하게 월를 촘으로 변해가는 영산포를 보면 가슴이 아프다. ‘근대의 거리’도 복원·조성하고, 혁신도시까지 도로도 놓고, ‘홍어의 거리’도 활성화시켜 밤 9시만 되면 유행의 도시인 영산포를 환하게 밝혀주도록 하겠다.

-3M 등 나주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지역청년들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일자리 창출에 묘안이 있는가.

▲지난번 토론회에서 일자리를 1만개 만들겠다고 해서 내용을 보니 일자리는 늘었는데 사람은 오히려 줄어들어 깜짝 놀랐었다. 최근에 기업지원실에서 나주 관내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봤더니 6억

최근에는 민사소송 패소로 금고가 압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압류된 금고를 풀기 위해서 50억원(현금 20억원, 채권 30억원)을 공탁했는데 회계 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절차로 SPC(특수목적 법인)의 자금을 사용했다.

앞으로 임기 4년간은 원칙이 무시되고, 투명성이 결여된 시정은 절대 없을 것이다. 산단 조성을 잘 마무리하고,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100% 분양을 달성해 2000억원 채무보증의 쇠사슬에서 탈피해야 한다. 문제는 분양가를 낮추는 것인데 중앙부처와 상급기관인 전남도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다. 또 안전과 관련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전 측에 협조를 부탁할 계획이다.

-4년간 한 공간에서 근무할 시 직원들에게 시장님의 운영철학을 말한다면.

▲직원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는 대신 책임을 반드시 못겠다. 다만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는 시장직을 걸고 직원들을 보호해 줄 생각이다. 즉 시민들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으면서 책임이나 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시민이 주인공 시정을 민원인이 찾아갔을 때 불친절한 직원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

/글·사진 나주=손영철기자 ycsn@

훌륭한 문화재 관광벨트화 ‘찾아오는 도시’로 일자리 늘리고 원도심 재생, 활기 불어넣을 것

라도 시민들을 재정위기에 구하고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아 공무원들이 오직 시민들을 위해서 열정을 바치도록 해 밝은 나주를 만들겠다.

-나주시의 부채는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나주호가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3000억에 육박하는 부채의 압초를 만났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은 미래 산단 개발과 관련된 빚인데 너무도 심각하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나주시의 부채가 344억으로 들었다. 교서 내용을 보니 332억원 정도 되더라. 그 외에 2300억원의 채무보증을 썼으니 나주시 빚은 263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또 남평 도시개발 및 신도 산업단지개발 등에 279억원 정도가 미지급된 금액이 있어 실제로는 2900억원에서 3000억원에 육박한다.

더욱 열악스러운 것은 금융권에 채무보증을 썼던 것이 실제로 시에 청구하는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12년 6월에 미래산단 1필지에 대한 7만 2000㎡(분양가 약 100억원)를 서울 소재 웨이브텔레텍에 분양했던 적이 있다.

시는 당시 32여억원을 웨이브텔레텍에 지원해 주고 분양된 땅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대출한 76억원에 대해서도 채무보증에서 서명해 주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중도금

는 농작물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농가는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제값을 받고 직원들은 믿을 수 있고 질 좋은 것을 사먹을 수 있어서 좋다. 신뢰가 쌓여 직원들이 주위 친·인척에게 홍보를 한다면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호혜원 이주계획은.

▲호혜원 축산으로 인해 심한 악취 때문에 혁신도시가 공동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다. 지난달 14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호혜원이 들어서게 된 동기부터 충분히 설명을 했다. 정의장이 공감과 하고 시장취임 후 한번 만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무던 상태다. 이주비용은 약 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혁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에 이주가 먼저 이뤄져야 순서인데 바뀌다 보니 이주문제가 어려워진 것이다.

-나주에는 타 지역에 비해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데 활용방안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동안 시는 문화재를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나주에는 관광벨트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노안에는 신속주 생가를 비롯해 임금님이 사액을 내린 서원들, 100년이 넘는 노안 성당 등이 있

2015. 5월 준공예정

한빛타워 분양/임대 비교할수록! 따져볼수록!

위치 가격 수익성 넘버원!

나주혁신도시내 중심 상권 프리미엄 빌딩

한빛타워 투자포인트

- 투자의 안전성: 신탁회사(아시아신탁) 자금관리로 수분양자 보호
- 합리적인 분양가 실용적인 설계: 인근 상가빌딩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 높은 층고(4.2m~5.4m)로 인한 업종의 다양화 실현, 전용률 극대화로 수분양자 이익실현(1층 66.9%, 2층~4층 71.44%)
- 뛰어난 접근성: 혁신도시 핵심상권에 위치하여 고객응답력이 우수한 프리미엄 상가, 5층에 스카이가든을 조성하여 운동, 휴식공간으로 활용

매주 투자설명회(수요일 13:00, 토요일 14:00, 분양사무실)

주식회사 오 늘 슬로몬 공인중개사 | 061)333-7077 | 010-5587-3080

시행: 한빛가림(유) | 책임시공사: 건해종합건설(주) | 신탁사: 아시아신탁

한빛타워 분양사무실:

- 빛가람동 주민센터
- 우정사업정보센터
- 국립전파 연구원
-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 중양호수공원

한전 KDN, 농수산물 유통공사, 한전 KPS, 중앙호수공원